

# 2013년 권역별 국제문화교류 전문가 파견사업 리서치 결과\_주 필리핀 한국문화원(고영주) 결과보고

## □ 목 차

No.	구분	내용	page
1	기관 및 단체	Fountain International School (파운틴 인터내셔널 스쿨)	252
2		필리핀 문화센터 (Cultural Center of the Philippines)	252
3		국가문화예술진흥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252
4	공간	Ayala Museum (아얄라 뮤지엄)	252
5		The Lopez Memorial Museum (더 메모리얼 로페즈 뮤지엄)	253
6		유첸코 박물관 (Yuchengco Museum)	253
7	축제 및 행사	KOTRA Korea Business Night, 슈퍼 주니어 콘서트	254
8		보니파시오의날 축제 (BGC Passionfest 2013)	254
9		시네 마닐라 국제 영화제 (Cine Manila 2013)	255
10	인물	Ms. Silvana Diaz	255

<b>기관/단체명</b>	<b>Fountain International School (파운틴 인터내셔널 스쿨)</b>		
<b>유형</b>	<b>국제 고등학교</b>	<b>장르</b>	
<p>문화원의 Culture Caravan 행사로 방문했었던 Fountain International School 은 터키 출신의 한 교육자에 의해 2003년에 설립 됐으며 종파와 인종을 뛰어넘어 세계 평화를 추구하고 다양한 문화를 교류하는 기본적인 지침을 세웠으며, 창조적인 사고 능력과 함께 역동적인 사회의 일꾼이 될 책임감을 겸비한 전인적인 인격체를 양성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학습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며 특히 과학과 수학 등에서 학생들의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화학, 물리학, 생물학 등의 전용실험실을 두고 있어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탐구하며 풍부한 교과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며, 체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기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매년 'Science Math Fair'를 개최하고 있다. FIS 학생들의 수준은 필리핀 교육청 주관 과학퀴즈 프로그램과 탐구 학습대회, 메트로 بانک 주관 수학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그 실력을 입증하고 있다. FIS는 한 학년에 한번씩 16명이 정원으로 현재 20개국의 130명의 학생들이 재학중 이다. 터키, 미국, 유럽, 아시아 학생들이 재학 중인 만큼 외국인들을 위한 프랑스어, 스페인어, 터키 언어등 다양한 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필리핀과 터키, 유럽 등으로 나가는 수학여행 프로그램이 있으며, 인성교육과 개인의 소질 개발을 위해 음악, 미술 등의 예체능 분야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능력을 갖춘 필리핀과 해외의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과 후 수학, 과학 등 특정 과목과 분야에 대한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유지원과 초등교육 1~6학년 / 고등학교 7-10학년 입학 시기 3~6월. 입학시험과목 영어, 수학, 과학 IQ 테스트, 인터뷰를 통해 입학 할 수 있다.</p>			
<b>기관/단체명</b>	<b>필리핀 문화센터 (Cultural Center of the Philippines)</b>		
<b>유형</b>		<b>장르</b>	
<p>필리핀 마닐라 파사이 시티(Pasay City)에 있는 필리핀 문화와 예술 공연 기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며 필리핀 문화의 산지로 발레·콘서트·연극 등의 예술 공연이 열린다. 국제 회의가 개최되기도 한다. 필리핀 전통예술의 기법을 소개하는 전시관이 있는 필리핀 국제 회의장과 예술극장, 코코넛나무를 주재료로 지은 특이한 건축구조의 코코넛궁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CCP는 마르코스 대통령 재임시절 조성된 복합 문화단지로 현재까지 다양한 공연과 행사, 전시회 등이 개최되는 필리핀 문화예술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p>			
<b>기관/단체명</b>	<b>국가문화예술진흥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b>		
<b>유형</b>		<b>장르</b>	
<p>NCCA는 필리핀 문화의 발전과 예술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으로 필리핀 정부의 공식 예술위원회이다. 1987년, 당시 대통령 코라 존 C. 아퀴노는 대통령이 문화 예술에 대한 법령을 제정한 후 5 년 후 1992년, 문화와 예술을 위한 국가위원회 (NCCA)를 만들었다. 정부의 행정 명령 80 호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문화 예술의 발전에 연결된 기관의 전반적인 정책과 조정 및 구현하기 위해 , 문화를 위한 국가 기금 기금과 예술을 관리, 예술적 자유의 기후에서 예술 창작을 장려 개발 및 필리핀 국가 문화 예술을 홍보하고, 필리핀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다.</p>			
<b>공간명</b>	<b>Ayala Museum (아얌라 뮤지엄)</b>		

유형	장르
<p>아얄라 그룹은 부동산, 보험, 글로브 텔레콤, 자동차 등을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이다. 1층 안내 데스크에서는 표를 구매할 때 거주자인지 관광객인지 묻고 몇 층까지 관람할 것인지 묻는다. 거주자와 관광객의 티켓 값이 다르고 4층 전시관은 별도로 표를 구매해야 한다. 4층 전시관에는 도자기 전시관, 필리핀 유적 전시관, 18-19세기 필리핀 의상 전시관으로 나뉘어져 있다. A millennium of contact라는 타이틀로 전시되고 있고 도자기는 중국, 타이, 관동지방과 필리핀 도자기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Gold of Ancestors 필리핀 유적 전시관은 들어가는 문이 황금색이고 철장 같은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민도르 등에서 발굴된 금붙이들이 바닥에 깔려 있는데 필리핀인들은 고대부터 금장신구를 사용한 것 같다. 귀걸이 벨트, 황금가면, 반지 등 그린힐이나 산주 안에서 발굴한 토기들이 전시되어 있다. Embroidered Multiples라는 필리핀 의상 전시관에는 18-19세기에 필리핀 사람들이 직접 입었던 블라우스나 손수건 등이 전시되어 있고 3층에는 필리핀 18-19세기 미술가들의 그림을 전시하고 있었다. 3개의 테마가 다른 전시회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테마에 따라 청록색, 초록색, 흰색 벽으로 구분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2층 전시관에서는 The Diorama Experience와 boat gallery가 전시중 이었다. 보트는 중국 무역 때 들어왔던 배 모양을 비롯해 작은 크기로 축소한 모형이 여러 개 있었고, the diorama experience는 필리핀의 BC부터 근대까지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클레이 애니메이션으로 60개의 장면으로 주요역사를 알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다. 1부터 60가지 숫자를 따라가면 필리핀의 긴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섬세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에 따른 건축 양식이나 인테리어, 의상, 주변, 자연 환경 등도 알 수 있다. 에서 만든 박물관으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다채로우며 필리핀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역사 전시관을 디오라마로 만들어 냈다. 필리핀은 독립을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해 왔음을 알려주고 있다.</p>	
공간명	<p><b>The Lopez Memorial Museum (더 메모리얼 로페즈 뮤지엄)</b></p>
유형	장르
<p>1960년 제니오 로페즈가 재단을 설립하여 필리핀 예술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시 기획을 하며 기본적으로 온습도 조절과 보관에 소홀함이 없이 그 보존 기능을 강화 하고, 관람객을 위한 교육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박물관이다. 필리핀 문화의 풍요로움과 유산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리핀 미술만을 컬렉션 전시하고 있으며 그 목적에 따라 후안 루나, 펠릭스 작가의 전성기 작품이 다수 전시되어 있어 크지 않은 전시장 규모와 달리 큰 감흥을 느낄 수 있는 전시 관람을 할 수 있다. 박물관 가장 안쪽에 위치한 라이브러리에는 20,000 권의 도록이 있어 이벤트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상시 필리핀 미술 문화에 대한 공부를 상시 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p>	
공간명	<p><b>유첸코 박물관 (Yuchengco Museum)</b></p>
유형	장르
<p>2005년 9월에 마카티 RCBC Plaza에 문을 연 사립박물관으로 리잘 상업 은행 주식 회사의 본사(RCBC 플라자)에 위치하고 있으며 Yuchengco 그룹 ( YGC ) 의 주력 사업 중 하나로 자리 잡아 있다. 2011 년에 100 주년 기념식을 한 YGC 그룹은 금융, 투자, 보험, 교</p>	

육, 건설, 교통, 의료,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Yuchengco 박물관은 알폰소 Yuchengco에 의해 개관한 곳으로, 중국에서는 사업가이자 외교 사절단으로 예술 후원자 역할을 해왔던 알폰소 Yuchengco 의 중국과 필리핀의 예술 작품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전시장의 구성은 1~4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원통형의 좁고 긴 형태로 회화 작품이 주이긴 하나 부분 공간 활용으로 지루하지 않은 작품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중국 미술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이색적 이었다. 박물관의 4층 전시장은 Yuchengco 가족 의 중국쪽 소장품과, YGC자사의 주력 사업의 역사, 그리고 알폰소 Yuchengco 의 비즈니스 및 외교 경력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리핀의 대표 작가 juan luna y novicio, 사실적 역사화가 Fernando Amorsolo, 추상 작가H.R. Ocampo의 대표작을 시작으로 초중고대학생들의 공모전과 의상디자이너의 기획 전시를 박물관 창업주의 중국 컬렉션이 함께 전시되어 있는 것 처럼 필리핀의 고전예술 에 국한 된 것이 아닌 필리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하는 미술과 디자인 혹은 미술로서의 디자인 전시를 지향하고 하고 있다고 한다.

Yuchengco 박물관은 YGC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플랫폼 이며, 비즈니스 리더 로서가 아니라, 문화유산의 선봉으로 예술과 문화의 후원자로 활동하고 있다.

<b>축제/행사명</b>	<b>KOTRA Korea Business Night, 슈퍼 주니어 콘서트</b>		
<b>유형</b>		<b>장르</b>	
<p>KOTRA 마닐라는 필리핀에 투자를 촉진하고 필리핀 한국 비즈니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관으로, 필리핀 진출 및 진출 희망기업을 한국투자기업 지원,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노하우 및 현지 관련 기관을 연결하고, 입수한 필리핀 투자-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수집, 배포하고 있다. KOTRA 마닐라는 한국 대사관의 상업 부문 기관으로 필리핀 시장에서 한국 제품을 수입하고 배포 할 필리핀 기업인을 위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연중 행사로 행해지는 이번 행사는 표창과 투자 결과에 관한 보고회를 갖는 행사였다.</p> <p>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몰 오브 아시아 아레나(Mall of Asia Arena)에서 개최된 '슈퍼주니어 월드 투어 '슈퍼 쇼5' 인 마닐라(SUPER JUNIOR WORLD TOUR "SUPER SHOW5" in MANILA)'가 약 1만여 명 관객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을 이뤘다. 이날 정규 5집 앨범 타이틀 곡 'Mr. Simple'로 공연의 포문을 연 슈퍼주니어는 '미인아', '쏘리쏘리', 'Sexy, Free &amp; Single' 등 히트곡 무대는 물론, 앨범 수록곡 무대, 유닛 무대, 분장쇼 등 다채로운 매력의 28곡 무대로 좌중을 압도 했다. 서울 잠실 올림픽 체조경기장 보단 넓지 않고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강렬한 음악과 다이내믹한 안무, 다양한 무대 연출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공연을 펼쳐 관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2년 5개월 만에 슈퍼주니어 단독 콘서트에 무대에 오른 희철은 '월바'의 솔로 무대로 현지 팬들의 더욱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세계에서 3번째 큰 규모이자 필리핀 최대의 쇼핑몰인 에스엠 몰 오브 아시아는 한국 코엑스 몰의 약 5배의 규모이다. 약 750개의 상점, 220여개의 레스토랑, 국제 경기 주최가 가능한 아이스 스케이팅 경기장인 에스엠 스케이팅 링크, 아이맥스 영화관까지 그야말로 초대형 쇼핑몰이다. 마닐라 베이와 접한 넓은 옥외 공간과 함께 어우러져 있다.</p>			
<b>축제/행사명</b>	<b>보니파시오의날 축제 (BGC Passionfest 2013)</b>		
<b>유형</b>		<b>장르</b>	
<p>독립운동가 안드레스 보니파시오(Andres Bonifacio)를 기리기 위한 행사로 "하이! 서울 페스티벌"처럼 도시 전역에서 행해지는 큰 축제로 글로벌시티의 보니파시오 하이스트리트 지</p>			

역에서 행해지는 축제다. 매년 11월 29~12월 1일중(11월 30일 보니파시오 데이)에 축제가 있으며 올해에는 마라톤과 필리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과 아티스트 150명의 길거리 페인팅등이 행해졌으며 첫째날 Gantimpala Theater Foundation의 Pop -Rock Musical인 "Katipunang(Mga Anak ng Bayan)"은 보니파시오의 혁명 조직 구성 과정과 혁명을 실외공연임에도 웅장하고 역동적으로 보여주며 주민들의 자유로운 관람이 가능하도록 실외 원형극장에서 진행되었었다.

<b>축제/행사명</b>	<b>시네 마닐라 국제 영화제 (Cine Manila 2013)</b>
---------------	---

<b>유형</b>		<b>장르</b>	
-----------	--	-----------	--

시네 마닐라 국제영화제는 1999년 개최된 이후 동남아시아 및 세계 각국의 영화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영화제다. 시네 마닐라국제영화제는 2001년 김기덕 감독의 '섬'(여우주연상)을 시작으로 2005년 '그때 그 사람들'(최우수 작품상), 2010 '하녀'(감독상, 여우주연상), 2011년 '시'(여우주연상) 등의 한국영화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2012년에는 그 뒤를 이어 '범죄소년'이 2관왕에 등극, 3년 연속 한국영화가 경쟁 부문 주요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었으며 2013년 개막작에는 김병우 감독의 더 테러 라이브가 선정되었다. 행사 시작에 앞서 기차 회견과 간단 리셉션이 있었고 상영전에는 사회자의 진행하에 시네 마닐라 지원 감독의 수상과 필리핀 대표 락 가스 페페 스미스의 짧은 공연이 있었었는데, 영화제 진행에 있어 시간엄수와 음향 기기 정비등의 미흡함과 외국 감독 소개나 영화 소개를 하는 등의 예우가 부족한 점이 아쉬웠다.

<b>인물명</b>	<b>Ms. Silvana Diaz</b>	<b>소속</b>	<b>GALLERIA DUEMILA</b>
------------	-------------------------	-----------	-------------------------

<b>장르</b>	<b>미술</b>	<b>연락처</b>	<b>gduemila@gmail.com</b>
-----------	-----------	------------	---------------------------

이탈리아 태생의 실바나 디아즈는 뉴욕에서 오랜 체류 후 마닐라에 정착한 후 30여년 동안 필리핀을 대표하는 블루칩과 현대 작가 의 작품을 홍보하고 전시하는 활동을 한 전시 기획자다.

1974년 결혼 후 필리핀으로 이주한 디아즈는 1975년 12월 5일에 필리핀 마카티에 Vermida 건물에 Duemila 갤러리를 열었다. 이탈리아에서 Duemila는 20 세기 현대 미술을 의미하는데 과거를 간직하고 있는 나라에서 근간을 둔 갤러리 Duemila는 개관 이후로 활발한 전시 기획으로 다양한 작가를 소개하고 있다. 그녀는 필리핀과 컬렉터들에게 현대 미술 을 소개하고 필리핀 작가들이 국제적인 명성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미술계 대표 전시기획자이다.